

35사단 인근 힐링공간 조성

임실군, 2억원 들여 왕벚나무 외 12종 식재 내방객·군장병 면회객 위한 녹지공간 기대

임실군이 육군 35사단 주변을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도시 숲을 조성했다. 군은 지역을 찾는 내방객과 35사단 군장병을 방문하는 면회객들에게 쾌적하고, 활기찬 느낌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임실을 감성리 521번지 35

사단 입구에 위치한 유희지의 도시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대상면적은 약 0.6ha다. 국방부 소유인 이곳은 임야지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덩굴 등이 얽혀있

고 잡목이 무성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쳤던 곳이었다. 하지만 임실군이 35사단과 협의하여 총경마를 주된 및 군장병은 물론 임실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도 쉼터가 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주변 군부대의 딱딱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단일수종보다는 사계절 연출이 가능한 화목류인 왕벚나무 외 12종을 다양하게 식재했다. 국화종류인 벌개미취와 구절초 및 꽃잔디를 공간 가득 심었으며 가로수 정비과정에서 이식하게 된 왕벚나무 16그루도 이곳으로 옮겨 심어 경관을 크게 개선시켰다. 곳곳에는 산책로와 파고라, 물의자도 설치하여 공간을 가까워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연못을 만들어 수변경관 제공뿐 아니라 수생동식물들의 서식처 역할 등 생태계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심 민 군수는 "최근 미세먼지 등 도심속 환경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도시숲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빈 공간에 숲을 만들고 도로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심곳곳을 연결하는 녹색네트워크를 형성, 군민들에게 녹색복지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이 육군 35사단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도시숲을 조성했다.

황숙주 순창군수, 국비 확보 발빠른 행보

기재부·국토부 등 방문... 장내유용미생물은행 등 대형사업 협조 요청

3선 고지에 오른 황숙주 순창군수가 발빠른 국가에 산 확보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황군수는 18일 간부회의에서 내년 국가예산 확보 1000억을 목표로 성과장들이 발로 뛰어줄 것을 강력 주문한데 이어 19일에는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담의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황군수는 기재부 농림해양수산과, 국토교통예산과, 지역예산과, 복지예산과를 잇따라 방문해 장내유용미생물은행, 밤재터널개발사업, 국립노화연구원 설립관련 국가예산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장내유용미생물은행은 제대혈과 같이 태변과 짧은시절 건강한 대변을 보관했다가 40대 이후 장내미생물 균형이 깨졌을 때 가족의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1조 2천억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도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밤재터널 개량사업은 국비 488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도로 시설 개량을 통해 쌍차에서 순창을

가는 군민들의 교통안전에 큰 도움을 주는 주민 숙원사업이다. 국립노화연구원은 급속한 고령사회에서 국가차원의 노화연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 연구기관이다. 황숙주 군수는 "예산 왕창 따오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앙부처 방문시기를 서둘렀다"면서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내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으로 8개 사업 5,726억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날 황군수는 기재부 농림해양수산과, 국토교통예산과, 지역예산과, 복지예산과를 잇따라 방문해 장내유용미생물은행, 밤재터널개발사업, 국립노화연구원 설립관련 국가예산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장내유용미생물은행은 제대혈과 같이 태변과 짧은시절 건강한 대변을 보관했다가 40대 이후 장내미생물 균형이 깨졌을 때 가족의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1조 2천억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도 기대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밤재터널 개량사업은 국비 488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도로 시설 개량을 통해 쌍차에서 순창을

구독·광고문의 288-9700



'2018 남원 오픈 국제 검도대회 및 제26회 조병용 선생 추모 검도대회'가 막을 내렸다.

한국 검도의 세계화를 꿈꾼다

남원오픈 국제검도대회 및 조병용 선생 추모 검도대회

이런 초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검도인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2018 남원 오픈 국제 검도대회 및 제26회 조병용 선생 추모 검도대회'가 막을 내렸다. 6월 15일 개막을 시작으로 3일간 남원 춘향골체육관에서 진행된 남원 오픈 국제 검도대회는 7개국 3,050여명의 국내외 선수단 및 관계자가 참가하는 대규모로 치러졌다. 어느 때보다 성공적이었던 이번 대회의 뒤에는 묵묵히 이번 대회를 치러낸 남원시민들과 대회지원에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인 남원시와 남원시검도회의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남원시는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된 국비를 2018년도에 확보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선수단이 마음껏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으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대회개최 전 체육관 방남 방 시설 보수 등 선수단이 부담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체육관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수들의 요구보다 한 발 앞선 지원을 아낌없이 펼쳤다. 남원시 검도회에서는 태극, 일본, 베트남 등 초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남원 및 한국 검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외선수단의 금번 검도대회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종이팩을 화장지로 교환해 드려요"

임실군, 오늘부터 실시

임실군은 20일부터 종이팩 화장지 교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이팩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포장재를 말하며, 천연펄프로 만든 고급 종이에 안팎으로 폴리에틸렌 필름(PE)등을 접합하여 액상 제품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 종이용기이다.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진 만큼 재활용 가치가 아주 높으나, 분리배출 인식 부족 등으로 발생량의 70%가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에 임실군은 종이팩이 배출단계에서 철저히 분리배출이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화장지 교환 사업을 추진한다. 사용한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 말린 후 압착하여 군청 환경보호과나 읍·면사무소로 가져오면 용량별로 200ml 30매, 500ml 15매, 1000ml 10매를 화장지 1롤로 교환해준다. 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중기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남원시는 근로자가 행복한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월 18일부터 총 6회에 걸쳐 남원시 소재 기업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되며, 양질의 교육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단 호남연수원과 함께 남원역사, 인문소양, 자기관리, 산재예방,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 등 근로자를 위한 직무역량 및 교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은 지난 2015년부터 금년까지 4년에 걸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500명의 근로자가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기시책이다. 올해 첫 강의는 귀촌인 10년지기 문화유산해설사 신해정 강사의 "사진과 이야기로 떠나는 남원 역사여행"으로 6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참여 기업 간 정보교류와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근로자가 있는 강소기업 문화조성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순창 '평생학습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순창군이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한 '평생학습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에 나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2018년 순창군 연계 평생학습 아카데미'는 7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7주간 운영되며 한지공예지도사과정, 몸과마음이 편해지는 요가과정, 중국어회화 초급과정, 신난다 하모니카과정 등 4개 과정이 운영된다. 각 과정당 20~50명 정원이며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평생학습아카데미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주관하고 순창군이 지원한다.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해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간 자격 취득 연계로 성인학습자의 학습욕구 고취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생학습은 군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평소 원하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향후 일자리와도 연계할 수 있는 과정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